

필자는 지난 2005년 1월 2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점심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나는 집이 없다. 청와대 올 때 집을 팔고 왔다. 내 아들도 집이 없다. 나를 포함해 서민들이 집을 살 때 까지 부동산 가격을 확실히 잡겠다”는 요지의 말씀을 했다.

청와대를 나오면서 ‘대통령이 자기 집이 없다고 집값을 잡겠다는 말이 대통령의 권위로서 합당한 말인가’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얼마나 솔직한 발언인가’라는 말을 하는 인사도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의 부동산을 때려잡겠다는 정책의지도도 불구하고 부동산관련 대책은 모두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퍼부어 대는 부동산 대책 폭탄이 약효가 안 먹히고 있다. 약효가 안 먹힐 뿐만 아니라 정책의 부작용으로 엉뚱한 쪽이 피해를 입고 있다. 정말 ‘강남 아줌마’ 수준보다 못한 부동산 대책에 국민이 믿지 않는다.

윤락여성에 대한 대책을 말할 때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에 바람이 불리는 ‘홍선효과’로 표현하고 있는데 부동산 대책도 이와 흡사한 면이 있다.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패착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돈 가진 사람, 강남사람



불자 세상보기

황진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패착한 부동산정책

이 사는 지역의 집값을 잡고 지역균형발전을 시키겠다고 시작한 것이 결국 강남기대수익율을 더 높이고 지방방값만 상승시켰다. 원래 부동산 정책이 원활하게 흐르기 위해서는 주택공급확대, 유동자금의 건전한 투자유도, 부동산관련 조세 강화 등의 정책이 나와야 했다.

그런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돈 있고 강남 사는 사람만 잡으면 전 국민이 박수를 칠 줄 알았는데 집값은 더 오르고 서민들은 집 갖기가 더 어렵게 되었다. 첫 번째 패착(敗着)이다. 둘째, 평등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책의 흡수

다. 노무현정부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바로소득이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주원인이므로 이를 100% 환수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의 무공급, 분양가 원가공개, 개발이익환수 등 주택공급을 방해하는 조처를 연속적으로 내놓았다. 그러다보니 서울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은 거의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중대형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킨 것이다. 수요와 공급에 따른 자본주의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꾸어 보겠다는 정책이 패착의 두 번째다.

셋째, 즉흥적, 무계획적, 반복적 부동산 정책이다. 참여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대부분 시장원리를 무시한 공급억제 정책과 엉뚱한 곳에 수요를 만들려는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가져왔다.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정교한 계획도 없이 신도시 발표를 했다. 부동산 정책의 일반적 경향인 장기적 차원의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의 관점도 아니고, 단기적 차원의 시장안정 대책도 아니다.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어섰는데 검단에 분담급 신도시, 파주에 일산급 신도시를 세운다고 발표를 하면 관심 있고 인기 있는 지역의 부동산 수요에 맞맞은 대책이라고 보는다.

특히 신도시에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서민으로서의 상상하기 힘든 가격이다. 한마디로 가진자들만을 위한 명품 신도시 계획인 셈이다. 이는 계층간의 위화감을 물론 빈부의 차를 더 크게 만들어 우리 사회를 더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젊은 사람이 자기 집을 장만하는데 44년이 걸린다는 경제연구원의 보고서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결론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강남집값도 못잡고, 서민들 주거안정도 달성하지 못한 최근의 정책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야말로 정책의 하지(下)지다.

불자의 눈

인본주의 심리학자 매슬로우의 인간 기본 욕구의 위계설을 주장했다. 인간은 생존의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 자존감에 대한 욕구, 자기실현의 욕구를 갖고 있다고 한다. 이들 욕구는 위계가 있어서 하위의 욕구를 충족해야 상위 수준의 욕구가 생긴다. 즉 앞에 열거한 순서대로 욕구를 충족시켜야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생겨나 궁극적으로 자기실현의 욕구가 발달해 간다.

최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불교사회복지기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999년에 이어 7년 만에 실시된 이번 조사 결과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은 모두 477개소, 1995년에 비해 382개소, 1999년에 비해 165개소가 늘었다.

이 결과를 분석해보면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이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불균형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설에 대입해 보면 이러한 경향이 더욱 분명히 보인다.

불교복지의 다양성 '화두'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봉사하는 부문이 아직 기본적인 욕구 즉 생존의 욕구와 안전의 욕구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좀더 인간다운 삶, 나아가 영성까지 추구하는 여타 종교의 복지 지향성에 비하면 초보적 단계다.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의 5단계에 한 단계를 추가시켰다. '개인을 초월하고자 하는 욕구'다. 불자들이야말로 바로 이 최상위의 욕구 단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운영 주체를 보면 전체의 65.6%인 255개소가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중이며, 순수 불교계 지역 시설은 34.4%인 134개소에 불과하다. 즉 불교의 종교성을 구현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불교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면서도 인간교육의 가장 높은 단계인 부처님 법을 만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다. 복지시설운영을 통해 활발히 종교 전도 활동을 벌이는 타종교와 현저히 비교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스님이 재직하는 시설이 조금 늘어(6.6%)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복지시설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해 앞으로 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 권경희(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특별기고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보고

제14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회오리바람처럼 지나갔다. 종단 정치로부터 먼 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왜 '회오리바람처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가?

이번 선거와 관련된 이면저면 소리들을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었고 들은 소리들이 모두 종단의 앞날을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했기 때문이다. 선거과정은 말로만 전해 들었지만, 마치 회오리바람이 들판을 휩쓸고 가듯 선거가 그렇게 치러졌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했다.

선거와 돈, 세간의 선거돈 출세간의 선거돈 돈의 개념에 따른 부작용은 다를 바가 없는 듯 하다. 세간의 선거에서는 금품을 주고받으면 50배의 벌금을 물리는 등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출세간의 선거에서는 금품과 관련한 제도를 말하는 것조차 부끄럽다.

승가의 선거에서 돈이 오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승가를 비속자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관련 법규가 없는 것도 아닌데 공공연히 금품 살포시 둘러싼 말들이 나오고 세간으로까지 흘러 나간다. “출마자가 돈 쓰는 것은 선거의 기본이고 얼마를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나왔다.

자신의 의사 표시를 위해 투표권이 있는 스님들을 만나고 기본적인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정황은 심본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

과 규모가 경쟁적으로 커지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는 승가의 재원이 분배(均配)되는 계기도 된다”는 웃지 못할 얘기도 있다고 한다. 선거를 통해 ‘가진 스님’의 ‘가진 것’이 그렇지 못한 스님들에게 분배가 된다는 말도 안되는 이 논리는 승가의 의식이 어떻게까지 땅에 떨어졌는가 하는 우려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돈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선거가 승가의 기



에서 터져 나왔다. 선거에 입후보한 스님도, 그 은사스님이나 상좌스님도, 한 표의 ‘힘’을 가지고 여러 유권자를 만난 스님도 이를 지켜보는 재가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이 말을 했다는 것이다.

종단의 구성원 모두가 선거에 대해 상당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오늘날 조계종의 선거는 1994년 개혁종단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 이전의 종권이 매우

수행의지를 잃어 버린 개혁불사의 정신이 사라지고 현실적인 욕망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한 탓에 ‘대중공의’가 세간의 선거를 능가하는 타락상으로 변한 것이다.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찍이 법장 스님이 총무원장 재임중인 선거법을 고쳐 승가의 권위와 질서를 회복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했었다.

그 노력에 중앙종회의원 대다수가 동참했고 교구본사 주지를 비롯한 많은 승가 구성원들이 지지했다. 그러나 종헌준법의 개정을 둘러싼 ‘실무’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고 들었다.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면저면 실리와 명분 간의 계산이 오고갔던 탓이리라.

출마자에게는 한 시도 떠나서는 안 될 곳, 잘못됐다 싶을 때 빨리 돌아가야 할 곳이었다. 선거와 관련된 오늘날의 불합리한 현실에서 승가 구성원 모두가 돌아가야 할 곳 또한 그곳이다. 어디일까? ‘출가정신’ ‘출장정신’ 바로 그곳이다.

그곳으로 돌아가 개혁불사의 취지와 현재 종헌 준법의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 그간의 시행을 경험으로 과감하고 합리적으로 법을 고치고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세속화 일로를 걷고 있는 오늘날의 승단을 진정한 출세간의 자리로 돌려놓을 방도를 찾아야 한다. 세간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출세간은 그 존립의 의미마저 잃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는 포교현장에서 매일같이 느낀다.

내 곁에는 불보살님보다 더 어려운 중생이 있다는 것을.

수진(부산 해인정사 주지)

‘선거가 종단 망친다’ 곳곳서 개탄, 승단 위계까지 ‘위협’

‘대중공의’ 취지 갈수록 흐려져...울장정신 되새기자

강과 권위를 무너뜨린다는 점이다. 종회의원이건 교구본사주지건 혹은 총무원장이건, 선출직의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자들을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한 표를 부락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찾아간 투표권자가 조카상좌라거나 강원이나 선원의 후배가 되는 경우라면 어떻게든? 부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문중의 어른이나 선배로서의 권위를 지킬 수 있겠는가? 표와 권위를 바꾸는 것을 선거판의 일시적 상황논리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선거가 종단을 망친다.” 이번 제14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이 말이 종단 곳곳

불안하고 한 사람의 힘에 의해 종단이 사회의 변화를 외면하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데 대한 자성으로부터 개혁의 불길이 솟구쳤었다. 엄청난 시련을 겪으며 종단은 환골탈태하여 많은 부분에서 민주적인 틀을 갖추었다. 그 과정에서 불교전통의 의견 수렴 방법, 즉 대중공의 전통을 통해 주요 직책 맡을 스님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간 선거가 치러져 오는 양상을 지켜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선거를 둘러싼 잡음이 ‘대중공의’라는 아름다운 전통의 가치를 좁혀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출가정신의 퇴색이



眞人으로 가는 最短의 지름길!

眞理探求 진리탐구 先鋒者 선봉자 및 道人도인들의 새 道場도량

- ◎ 業穢(업장)을 해결하고 갑시다
- ◎ 遺傳(유전)으로 인한 병고에 시달리는 분
- ◎ 原罪(원죄)해결 방법을 원하십니까
- ◎ 心, 마음의 병으로 고통 받고 계시 분
- ◎ “丹”(法輪)을 이루고 싶지 않으세요
- ◎ 靈氣(영기) 神氣(신기)를 뽑아냅니다

핵심(核心)에 직접 치고 들어가지 못해 수년씩 수행정진(修行精進)을 했다 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혹은 병의(憑依)되거나 영통(靈痛)에 그쳐 도통군자(道通君子)인 듯이 스스로에게 속아 몸과 정신에 악영향(惡影響)을 끼치게 되어 건강을 잃는 불상사를 낳고, 후세(後世)에도 씻지 못할, 후회(後悔)해도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의 늪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遺傳유전이 될 수밖에 없기에)

이 “法”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본인의 수련으로 직접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역사 이래 최초로 공개된 이 최첨단 수련법으로 나를, 참나(眞我)를 찾으십시오. 원하는 이는 누구나 이 법(法)을 전수 받을 수 있으며, 수련과 더불어 자신의 몸과 마음에 법이 녹아들어 法體(법체)가 되어 감을 스스로 확실하게 체험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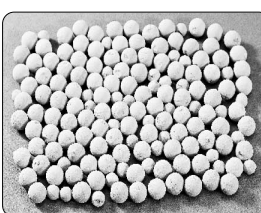
본 원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수행의 진수(眞髓)를 얻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아 새롭게 태어난 “大 自由人”이 되도록 올바른 길을 인도해 드립니다.

특히 眞理探求에 앞장 서시기를 원하는 우수한 指導者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歡迎)합니다.

서울시 정릉골 普德仙院 院長 올림
02)6081-8373 / 016-327-3772

백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이고 편안한 잠자리

상쾌한속면 신비의은행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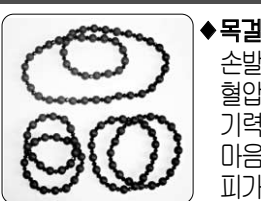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복한에서는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붓어를 넣으면 붓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붓어는 씩씩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생명의 기!
복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셔도 건강하게 장수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풀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걸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 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합장주도 게조 판매합니다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입금계좌번호 1143-12-049474 송명희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